

## 좋은교사운동에서 수업연구의 역사에 관한 연구\*

- 좋은교사 저널에 실린 교사의 수업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진용성<sup>1</sup>, 지정화<sup>2</sup>, 서미라<sup>3</sup>, 이세희<sup>4</sup>, 박선영<sup>5</sup>

### 《 요 약 》

이 논문은 ‘좋은교사운동’에서 수행한 ‘수업연구’의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한 연구이다.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였고, 113편의 좋은교사 월간지를 분석하였다. 좋은교사 저널 내에 연재된 ‘좋은교사 좋은만남’ 코너가 주된 분석대상이었으며, 이 코너는 교사의 수업생애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좋은교사운동에서의 수업연구는 한국 수업의 역사(이혁규, 2019)와 유사한 지점을 보이며 논의되었다. 교사들의 생애사를 통해서 열린교육과 혁신교육의 시도, 자발적 연구모임의 증가, 수업연구를 위해서 실행연구와 질적연구 등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좋은교사운동에서의 수업연구는 나름의 특성을 보이며 논의되었다. 대안적 교육을 탐색하는 공론장으로서의 대회, 수업연구가 교육 정책운동으로 전개, 동료교사의 시선에서 함께 수업연구를 하는 수업코칭연구소와 같은 전문적인 활동의 전개 등이 있었다. 셋째, 한국의 수업연구 역사와 좋은교사운동의 수업연구의 일부를 주체로서 주도하고 함께한 2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애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수업연구, 좋은교사운동, 교사의 수업생애사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청주교사교육포럼(CITEF)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1. 평내초등학교 교사, jinyoungsung@hanmail.net (주저자)
2. 부용초등학교 수석교사, ji731015@korea.kr (공동저자)
3. 암사중학교 수석교사, seomira1@hanmail.net (공동저자)
4. 송우초등학교 교사, cccbeauty3787@gmail.com (공동저자)
5. 태봉초등학교 교사, bsy122@hanmail.net (교신저자)

## I. 서론

수업의 역사는 교육과정과정을 실천하는 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의 생애가 켜켜이 쌓여 형성된다. 성찰적 실천가로서의 교사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해석하고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앞서서 실천하기도 하며 교육과정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수업의 역사를 살피는 일은 주요 수업이론의 변화, 주요 수업관련 정책의 변화, 수업관련 연구의 변화양상 등을 살피는 것과 함께 교사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수업의 현장은 다양한 수업의 역사가 함께 공존한다. 예를 들면, 한 지역과 한 학교, 동 학년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수업실천도 다양한 경력, 다양한 배경, 다양한 전문성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교사의 수업실천과 수업연구를 연결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공존의 양상을 보는 것이기에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 전문성의 발현 통로이자 학습자의 역량이 성장하는 수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에 비해서, 수업연구의 역사를 논의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수업의 사적 연구는 교육적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수업의 개념역은 수업의 주체인 개별 교사의 삶을 떠나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의 실존적 고민이 수업에 달레마로 정착하기도 하며, 교사의 경험이 수업의 자료와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교사의 만남이 수업에 중요한 동기유발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교사공동체에서의 배움이 수업에 녹아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교사의 생애사를 담고 있는 교사단체의 저널을 내용분석하고 차후 수업연구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약 10년간의 좋은교사 저널 113권을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과 핵심어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유의미한 지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추가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 수업의 역사를 교사의 생애사에 나타난 수업연구를 통해서 살피는 작업에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 II. 선행 연구 검토

### 1. 수업연구의 개념

‘수업연구’란 개념은 일본 고유의 ‘수업연구’로 널리 알려진 편이다. 일본에서는 교사들이 공

동체를 이루어 수업을 실천, 성찰, 반성하며 연구하는 과정을 ‘수업연구’로 일컫는다. 일본의 수업연구는 1980년대부터 ‘lesson study’란 용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수업연구 운동에 영향을 준 바 있다(이혁규, 2019).<sup>1)</sup>

최권오(2007:6)는 수업연구를 “수업에 관한 연구과제의 해결 또는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해 장학 담당자와 교사 혹은 동료교사들이 수업계획을 세우고 관찰방법을 협의하여 수업관찰을 하고 결과분석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중학교에서의 수업연구 운영 사례를 연구하였다. 참여관찰과 문화기술적 면담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연구에서 신규 또는 전입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수업을 발표하며, 수업공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기 수업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나 피드백을 통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과 수업 개선 방향이 논의되고 있었다. 최권오(2007)의 연구는 수업장학으로서의 ‘수업연구’의 성격이 강했으며, 수업연구가 수업 기술 향상과 교사학습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훈(2017)은 수업연구를 교사들이 협력하여 수업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연구참여자 2명, 연구 조력자 3명과 협력적 수업연구를 진행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찾는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고민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수업을 연구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배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수업철학과 교사 정체성을 세워가며 더 나아가 교사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소연(2019:5)은 수업연구를 “수업과정과 관련하여 수업목표 도달을 위해 행하는 모든 현장 실천적 연구”로 정의하고 동학년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체육교과의 표현 활동 수업을 계획, 실천, 반성의 과정을 질적으로 연구하였다. 김소연(2019)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행하는 수업연구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사 개별 연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정서적인 교감과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사의 내적 동기를 고무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맥락이면서 교사자율연구모임과 관련된 논문 중 하나로 협동학습연구회의 발전 양태를 연구한 김성천(2007)의 논문이 있다. 김성천(2007)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1) 국내의 경우, 이혁규(2019)가 수업연구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연구를 고찰한 바 있다. 이혁규(2019:58)는 “광의의 수업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좁은 의미의 수업 연구는 거의 없다”라고 말한다. 현재, RISS에서 ‘수업연구’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229건이 검색되며 각 논문에서 검색되는 수업연구의 정의는 다양하다. 특히, 광의의 수업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초점화된 정의를 찾기 힘들다. 이로 인해 이혁규(2019:79)는 “수업 연구에 대한 통용될 만한 개념 정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탐색하고, 교사자율연구모임의 운영을 관찰하여 학교 변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협동학습연구회에 관한 문헌연구, 발간자료 수집 및 분석, 심층면접 및 모임 참여를 통해 문화기술을 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교사자율연구모임에서 교사들이 부정적인 교직문화를 극복해가며 전문성을 성장시켜감을 관찰하고 교육현장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들이 공동체(학교 안 공동체, 학교 밖 공동체 등)를 이루어 협력하며 수업을 연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sup>2)</sup>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자면 한국에서의 수업연구의 개념은 수업의 학습목표 도달 및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함으로써 협력적으로 수업을 개선해가는 연구 활동이며(김성천, 2007; 서경혜, 2012; 김소연, 2019; 이혁규 2019; 최권오, 2007; 최지훈, 2018), 수업연구의 개념이 조금씩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 연구에서 다루는 수업연구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업비평, 수업컨설팅, 수업멘토링, 마이크로티칭, 수업코칭, 수업나눔 등’의 개념역을 함의한다. 또한 수업을 교사의 교육생애사의 과정이자 결과로, 연구는 수업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sup>3)</sup>

## 2. 한국 수업연구 역사

한국의 수업연구의 역사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수업연구 역사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시점에서 이혁규(2019)의 논문은 한국 수업연구의 역사 흐름을 개관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혁규(2019)는 한국의 수업연구 역사를 민주화가 진전된 상징적인 연도인 1987년을 기점으로 개관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흐름을 거시적, 미시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정치, 사회적 흐름과 교사 자발적인 운동에 영향을 받으며 수업연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 
- 2) 김옥선(2019), 이승현·한대동(2016), 홍제남(2016)은 수업연구 동아리, 수업연구 모임, 수업연구회라 공동체 참여와 교사의 수업 경험, 수업전문성과의 관계를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로 풀어냈다.
- 3) 학교 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업연구는 교육연구의 중요한 요소로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질 때 의미가 크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수업연구는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개정과 특정 단체가 주도한 현장교육연구에서 교과 내용 및 교수법에 대한 학회들의 연구활동과 자발적 교사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연구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수업연구는 학교급별로 교과 수업에 관한 연구, 교실 환경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개인 및 교사공동체에서 실행한 수업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학교 현장의 교실수업과 교사를 관찰하고 면담하여 수업과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고유성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수업연구의 역사를 교사의 수업생애사를 통해서 살피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수업 실천과 연구는 정부 주도적 연구에서 현장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이어졌다. 다양한 교과 수업과 관련된 연구, 교사공동체에서 실행한 수업연구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연구와 교사들이 직접 자신의 수업을 실행하고 연구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혁규(2019)가 주장한 한국 수업연구 역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수업연구의 역사(이혁규, 2019)

시기	주제	특징
광복 이후 1987년 까지	· 새교육 운동	- 미군정기에 시작되어 1950년대 초반까지 전개 - 교수법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노력 - 교사 중심보다 아동 중심의 수업 지향
	· 중앙정부에 의한 교육과정 개정	-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제 3차 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수업 실천의 변화 지향
	· 한국교총 중심의 현장교육연구대회	- 수업 연구와 실천을 주제로 현장연구대회 실시 - 수업 연구지 『새교실』 창간과 현장연구 보급을 위한 『교육연구』 발행
1987년 이후	· 열린교육 운동	- 1986년 시작, '5.31(1995) 교육개혁' 이후 전국적 확산 - 인간교육, 전인교육, 개성교육, 공동체교육, 창의성교육 지향 - 정부 주도의 급속한 수업 개선 운동으로 변하며 반발과 부작용 발생
	· 자발적인 교사연구모임 탄생과 확대	- 전교조 탄생 및 1980년대 후반 교과연구모임 태동(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 전국적 교사단체 출범(한국협동학습연구회, 인디스쿨, 배움의 공동체연구회, 미래교실네트워크 등) - 교사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집필한 단행본이 현장 수업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침
	· 수업연구를 향한 학계의 연구 동향	- 1990년대부터 수업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 증가 - 수업연구를 정리하려는 연구 등장 - 2000년대 수업비평과 학교컨설팅 등장
	· 기존의 현장연구를 비판하는 경향	- 질적 연구 계열에서 현장연구 대신 실행연구 용어 사용 - 질적 연구의 특성을 드러내는 실행연구 증가
	· 혁신학교 운동	- 2009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전국적 확산 -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윤리적 생활 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공교육에 영향을 미침 - 수업혁신 운동에 하브루타, 거꾸로 교실, 프레네 교육, 발도르프 교육, 배움의 공동체 운동, 아이의 눈으로 수업 보기, 수업비평과 수업 나눔 등이 영향을 미침

### 3. 교사의 수업연구와 수업 생애사<sup>4)</sup>

교사는 자신의 지식, 신념, 가치관에 따라 수업을 실천하면서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종합하고 재구성하며 실천적 지식을 쌓아간다. 특히 교직 생애 속에서 조직과 개인의 특성 및 발달 단계에 따라 교사가 경험하고 실천하는 수업은 다양하며 고유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생애사를 통해 교사의 수업연구를 탐구하는 것은 수업연구의 역사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방법이다.

생애사란 말 그대로 삶의 여정 가운데 주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의 해석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강민수, 문용린, 2007).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는 개인의 삶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과 연결하여 미시적 맥락과 거시적 맥락을 연결한다(강대중, 2009). 생애사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Giddens & Sutton, 2017).

수업 생애사는 한 개인이 경험한 교육에 대한 역사로 교사의 삶, 교육관, 세계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수업 생애사 연구는 교사 개인의 수업과 교육적 삶에 집중하고 주체적 목소리를 언어화함으로써 개인의 생애를 매개로 하여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자발적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 단체에서 발행한 교사 저널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업연구 역사의 흐름을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수업연구를 교사의 삶과 분리하지 않고, 교육 생애사적 사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저널에 등장한 교사의 이야기를 분석한 후 초점집단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생애사적 측면에서 교사의 수업연구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교사 경험 속에 나타난 수업 연구의 역사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

4) 생애사 연구에서 ‘시간성’은 기본적인 분석 단위이며(이동성, 2015) 시간성을 띤 텍스트인 내러티브는 생애 경로를 구성하며 비유(metaphor)를 통해 표현된다(Holstein & Gubrium., 2000). 교사 생애사 연구는 교사의 목소리를 복원함으로써(장도현, 2019) 변화하는 교육의 제도, 문화 속에서 교사의 삶을 깊이 탐색할 수 있다. 이동성(2013)은 생애사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맥락성, 내러티브, 관계성, 인간화’로 설명한다. 생애사 연구는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시간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의 주관적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내러티브로 연구를 전개한다. 인간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에 관계성이 중요하며 특정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좋은교사운동에서의 수업연구 동향을 연구하고 나아가 교사의 생애에서 나타난 수업연구 역사를 탐색해보고자 한다.<sup>5)</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출판된 좋은교사 저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드러난 주제를 바탕으로 좋은교사 저널에 생애사가 실린 교사 중 2인을 선정하여 초점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가. 내용 분석<sup>6)</sup>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CA)은 “연구자료로부터 반복가능하고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 5) 좋은교사는 좋은교사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기독교사를 깨워 좋은교사로 세우고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직사회를 만들며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기독교사 단체 연합운동이다. 전국에 12개의 회원단체와 2개의 협력단체가 있으며 약 4000명의 후원자가 있다. 전국적으로 회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직위와 나이, 공립과 사립 및 대안학교 등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개 이상의 지역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좋은교사는 적극적으로 수업운동을 진행하였다. 2000년 3월, ‘협동학습연구회’와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의 결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협동학습을 통해 수업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수업운동은 다양한 흐름으로 분화되었다.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좋은교사운동 소속 교사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수업 속에서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어교사모임과 같은 여러 교과모임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08년 ‘행복한수업만들기(이하 행수만)’ 운동으로 발전하여 행수만 초등모임, 행수만 국어교사모임, 한문교사모임, 음악교사모임 등 교과별 모임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교실 수업을 놓고 동료 교사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진행하는 실험을 거듭한 좋은교사운동은 2011년 9월 공식적으로 ‘수업친구만들기’ 운동을 제안하였고, 그 다음 해에 ‘수업코칭연구소’가 출범하며 전국 교실에 수업 대화가 확산되는 데 일조하였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원단체이며, 수업연구의 역사로서 교사의 생애를 저널에 지속적으로 기록하였고, 참여 구성원이 나이, 직위, 지역 등으로 다양하고, 학교급도 유치원부터 초중등까지, 학교 형태도 국공립, 사립, 대안학교까지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기에 한국의 수업연구 역사를 살피는 표집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6) 내용분석 방법은 양적 내용분석 방법과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 내용분석은 연역적인 접근법으로 연구자가 가설을 세우고, 내용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White & Marsh, 2006). 텍스트로부터 반복가능하고 타당한 추론(Krippendorff, 2004)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텍스트 내용을 코딩을 통해 범주화한다. 양적 내용분석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텍스트의 인용구를 통해 뒷받침한다(White & Marsh, 2006). 질적 내용분석의 경우 귀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며, 사회과학 이론, 비판적 학파와 관련이 있으며, 텍스트를 깊이 해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코딩의 도식은 미리 정하지 않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 심층적 탐색을 통해 만들어진다(이채영, 2020). Hamad(2016)은 질적 내용분석과 양적 내용분석이 연속선상에 있으며 상호보완적이고, 이 두 방법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서로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 필요한 연구 방법”(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129-130)으로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에서 시작된 연구 방법이다. 내용분석은 체계적, 객관적, 양적으로 메시지의 특성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은 TV 광고, 소설, 만화, 뉴스, 정치적 연설 등에 쓰인 언어사용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다양한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연구 역사를 드러내는 텍스트를 선정하여 연구대상 단위를 설정하고, 텍스트를 기록코딩하여 도표로 정리한 후 심층적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 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는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의 초점집단 심층 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수업연구 역사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수업연구 역사의 흐름을 개인의 교육 생애와 연관 지어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 가. 수집 자료

좋은교사저널 『좋은교사, 좋은만남』, 『정책기사』 2010년 7월호~2020년 11월호(총 113권)

### 나. 초점집단 연구참여자

〈표 2〉 심층 면담 연구참여자(표이어짐)<sup>7)</sup>

연구참여자	나이	성별	경력	비고
교사A	1970년대생	남	약17년	행복대 일반사회교육과, 소망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전공 행복대 일반대학원 파견, 박사수료 충남 지역 등에서 교사로 근무 좋은교사운동에서 상근으로 근무 (현) 교육부 교육연구사로 근무
교사B	1970	남	약20년	온유대 교육학 전공, 역사부전공

7)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서면 동의절차를 구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의 내용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요소에 동의하였다. 관련해서, 직접적인 학교 정보 등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년대생			기쁨대 교육정책행정 대학원 전공 중 경기도 지역 등에서 교사로 근무 혁신학교 사랑중에서 초빙 (현)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	--	--	--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저널 자료인 pdf파일을 분할(segmenting)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pdf to text(<https://pdfotext.com/ko>)” 사이트를 활용해 pdf파일을 text파일로 전환하였다. 전환된 text파일은 Rhino 1.4.5와 Rhino 3.8.0.을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하였다.<sup>8)</sup> 핵심어의 빈도 분석은 voyant 도구(<https://voyant-tools.org>)를 활용하여 연도별 잡지의 특성을 도출하여 시각화하였다.

전체 코퍼스 어휘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결과, ‘교사,’ ‘선생,’ ‘아이,’ ‘때,’ ‘하나님’과 같은 어휘가 크게 나타났다. 기독교적 배경에 따른 종교 관련 어휘, 교사 생애 관련 어휘, 수업연구의 역사 관련 어휘들이 나타나 특성에 맞게 분석 범주를 분류하였다.

〈표 3〉 ‘좋은교사 좋은만남’ 어휘 분석 범주

분석 범주	내용
1 종교 관련 내용	신앙적 배경, 종교적 신념 등
2 수업연구 내용*	수업연구, 수업실행, 수업 공동체,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 등
3 교사의 생애 관련 내용*	교사 생애 전환점, 중요한 사건 등

\*표시가 초점화되어 분석된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업연구의 역사의 한 흐름인 좋은교사 수업연구의 역사를 교사의 생애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수업연구’와 ‘교사의 생애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따라서 수업연구, 교사의 생애사 관련 어휘 중 빈도가 4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를 중심으로 상위빈도 어휘순서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교사의 수업연구 실천을 질적으로 들여다보고자 생애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좋은교사 회원 중 두 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내용은 전사하여

8) RHINO(real hangul input object)은 형태소 분석기로 형태론적 중의성과 복합어 처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석재(2014)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한국어 단어를 형태소와 품사별로 구문분석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의 현대 코퍼스 약 1200만 구문이 기반이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를 명사에 한정하여 텍스트 분석을 하였으며, 도출된 엑셀파일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자료화하였다. 수집된 텍스트는 민성은, 김영천, 정정훈(2015)이 제안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sup>9)</sup>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이야기기를 재해석하고 내러티브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적 내러티브에 깊이 접촉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교육실천가이자 개혁가인 교사의 삶(Dhunpath, 2000)을 탐구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IV장의 1절에서는 좋은교사 수업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혁규(2019)의 논의와 비교하며 의미화를 시도하고, 2절에서는 좋은교사운동 안에서 수업연구의 특징을 논의하며, 3절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견지하는 2명의 교사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앞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 1. 좋은교사 수업연구 역사의 전체적 양상

본 연구에서는 좋은교사 저널 중 『좋은교사, 좋은만남』 코너를 분석하였다. 『좋은교사, 좋은만남』은 좋은교사 회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애를 탐구하는 코너이다. 총 113편의 텍스트를 분석하였고, 전체 어휘 약 123,224개 중 누적 빈도수 4회 이상의 다빈도 어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좋은교사 좋은만남’ 다빈도어 연도별 분석 결과(표이어짐)<sup>10)</sup>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159개의 낱말	14,342개의 낱말	12,454개의 낱말	15,987개의 낱말	15,796개의 낱말
모임 115	아이 135	아이 155	아이 360	아이 233
양육 30	학생 123	기독교사 137	모임 94	모임 141

9) 첫째, 삶의 형태를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분석하여 행과 열로 두 목록을 교차시켜 매트릭스(matrix)로 시각화하였다. 둘째, Mandelbaum(1973)의 세 가지 개념 틀(차원, 전환, 적응)을 활용해 분석했다. 연구참여자의 시공간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차원을 탐구하였다. 인간관계를 통한 전환점이나 결정적 변화를 겪은 시점을 분석하고자 1차 코딩(기술적 코딩), 2차 코딩(축코딩)(Strauss & Corbin, 1998)을 활용하여 핵심범주를 밝히고 연결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적응 방식을 알아보고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중단적으로 코딩하였다. 셋째, 초점 코딩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가치관과 신념을 분석하였다. 넷째,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10) 다빈도어란 빈도의 순위가 전체 어휘 중에서 높은 어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원애런(2011:176), 최해성(2014:29), 정혜현 외(2021:133)의 논의를 참조하여 절대빈도가 높은 20위 내외의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누적빈도수 4회 이상의 어휘가 전체 어휘의 1.24%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협동	29	모임	116	모임	89	기독교사	84	기독교사	69
혁신	10	소명/사명	19/9	지역	32	협동	22	공동체	68
대학원	6	세계관	16	현장	22	헌신	14	대회	35
논문	6	대학원	13	협동	13	소명	13	협동	29
아카데미	5	현장	16	성장	13	양육	13	리더	26
아이/제자	82/27	협동	12	도전	13	어려움	13	코칭	13
		방문	10	소명	13	대안	8	연구회	12
		논문	8	연구회	12	혁신	6	전략	12
				대학원	7	대학원	5	소명	11
				코칭	5	토론	4	대학원	7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753개의 낱말		8,028개의 낱말		10,720개의 낱말		8,066개의 낱말		8,122개의 낱말		7,871개의 낱말	
아이	175	모임	128	아이	212	모임	128	모임	167	아이	135
모임	86	아이	77	학교	157	아이	77	아이	136	학생	130
기독교사	54	기독교사	58	모임	141	기독교사	58	공동체	75	공동체	56
공동체	38	대회	46	공동체	67	대회	46	학습	57	모임	48
수업	38	단체	14	학습	46	수업	42	회복	44	기독교사	31
양육	36	정책	12	양육	45	회복	27	협동	30	온라인	30
리더	21	코칭	9	협동	37	비전	22	연구회	28	연구	23
비전	21	양육	8	평가	22	동아리	22	보드	25	운동	23
관례	19	연구회	6	관계	20	공동체	19	양육	24	지역	12
대회	19	소망	5	연구회	19	단체	14	연수	21	연수	20
협동	17	리더십	3	동아리	18	코칭	9	단체	18	연구소	16
연구회	12			대학원	17	양육	8	관계	17	양육	15
혁신	10			놀이	15	어려움	8	소명	15	대회	14
프로젝트	10			소망	13	연구	8	교육회	10	정책	14
세계관	4			현장	12	리더	7	현장	10	영상	13
				연구	10	소망	5	대안	9	코로나	11
				혁신	10	연극	5	서클	9	혁신	11
				대안	9			동아리	8	동아리	9
								아카데미	8	이음	9
										프로젝트	5
										연구회	4

연도별 다빈도 어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어휘는 ‘모임’과 ‘아이’였다. 이는 좋은교사 단체가 공동체를 이루어 교육에 대해 고민하며, 아이 또는 학생들에 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셋째, ‘대학원’, ‘논문’, ‘연구’, ‘연구회’, ‘연구소’의 어휘를 통해 좋은교사 회원들이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고 논문을 쓰며 연구에 힘쓰고, 공동체를 이루어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협동’, ‘회복’, ‘프로젝트’, ‘단체’를 볼 때 특정 교수 분야(예. 협동

학습,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젝트 학습 등)를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단체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정책’, ‘혁신’의 어휘를 통해 좋은교사 단체가 교육 정책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혁신 교육에도 관심이 있는 회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 2020년에는 ‘코로나’, ‘온라인’ 등의 어휘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음으로써 생애사 자료가 수업연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좋은교사 좋은만남’ 다빈도어 전체 분석 결과

워드 클라우드	종합(6,784)			
	아이	1,777	동아리	149
	모임	1,263	관계	148
	기독교사	641	단체	134
	공동체	463	현장	131
	지역	380	연수	130
	대회 <sup>11)</sup>	293	연구회	111
	양육	270	전문	95
	비전	212	연구	90
	협동	184	질문	85
	캠프	162	대학원	66

전체적으로 『좋은교사 좋은만남』에 실린 글들을 보면, 아이(제자, 학생)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양육, 1:1결연, 가정방문, 학습상담 등) 가르치며 캠프를 열어 학생들과의 시간을 마련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기독교사 모임, 지역 모임, 교과 모임의 리더와 개척자로 학교 및 교사공동체에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협동학습연구회와 같은 활동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신장하고, 여러 공동체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비전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었다.

전문적 교육활동을 위해 여러 연수에 참여하고 대학원 등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전국 단위의 교사 대회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경험 공유의 장, 즉 “연구실천 공론장”이 되었으며 수업 전문성을 넓혀나가며 교사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데 계기가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전문성 신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학교와 교실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며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의 모임을 만들고 수업을 나누는 운동을 실천해 갔다.

이러한 특성은 이혁규(2019)가 서술한 한국 수업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혁규(2019)는

11) 이 ‘대회’는 좋은교사운동 전국 회원들이 2년에 한 번 모여서 연구실천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독교사 대회’를 나타낸다(진용성 외, 2019)

1987년 이후 한국 수업의 역사를 크게 ‘열린교육 운동, 자발적인 교사연구모임의 증가, 학계의 연구 경향 변화, 혁신학교 운동’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좋은교사 수업연구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혁규(2019)의 한국 수업의 역사와 본 연구에서 탐색한 수업연구 역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 수업의 역사와 좋은교사 수업연구 역사<sup>12)</sup>

시기	한국 수업의 역사 (이혁규, 2019)	좋은교사 수업연구 역사
1987년 이후	▸ 열린교육 운동	▸ 좋은교사 1998에 시작, 열린교육 이후
	▸ 자발적인 교사연구모임의 증가	▸ 협동학습 연구회, 회복적 생활교육 모임, 행복한 수업연구회, 수업코칭연구소 등의 자발적 교사연구 모임 증가
	▸ 학계의 연구 경향 변화	▸ 협동학습, 수업코칭 관련 등 질적 연구 증가
	▸ 혁신학교 운동	▸ 좋은교사 선생님들이 혁신 학교에서 헌신

이러한 요소에 대해 『좋은교사, 좋은만남』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부자적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열린교육과 자발적인 교사 연구 모임의 증가

열린 교육 운동 이후로 자발적인 교사 모임이 증가하였으며, 좋은교사운동도 그 흐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생애사를 통해서 처음의 모임은 자발적인 관계 지향의 모임을 성격을 갖다가 생활/신앙/교과연구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이후에는 전문적 연구회나 연구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 1) 협동학습연구회

다양한 연구 모임도 교사의 생애사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협동학습연구회가 빈번하게 교사

12) 해당 <표 6>에 대해서 연도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좋은교사 운동의 저널에 수록된 교사들의 수업생애사에 연표 정보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에 시작된 좋은교사 운동이고, 이 저널은 2010년대를 분석하였다. 이 저널은 현재적 시점만이 아니라, 교사의 과거 상황을 서술하는 수업생애사적인 성격을 담고 있기에 1987년 이후의 교사의 삶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널에 나타난 2010-2020 사이의 연도적 경향성을 밝히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으며, 좀 더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되었을 때 후속연구로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좋은교사 수업연구의 역사를 종합한 <표 4>와 <표 5>를 종합해 볼 때, <표 6>에서 이혁규(2019)의 한국 수업연구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동, 혁신, 코칭, 회복, 연구 등의 주요 키워드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등장하거나,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대적 조망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저널에 등장한다. 그 예로 2015년 1월호 조선생님의 글을 살펴보면, 협동학습연구회 회원들과 수업을 위해 연구하며 교육 활동 결과들을 지역 교사들과 나누고 있다.

광주협동학습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꿈과 비전을 나누고 있어요. 사실 연구회 회원들 각자는 다 평범한 분들이에요. 혼자서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죠. 하지만 협동학습 이론대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나름의 역할을 맡아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교육 활동 결과들을 나눠주는 일을 지속해** 가자고 격려하고 있어요. 세미나 등을 통해 만난 **선생님들이 교실의 어려움과 고민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실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 좋은교사 조선생님(15년도 1월호)

## 2) 수업연구모임

행복교실과 관련된 운동은 수업을 교사의 정체성(신념과 세계관, 경험) 등으로 재구성하는 열린교육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흐름은 자발적인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임과도 연계해서 수업연구를 하는 모습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에 기독교사모임이 커지면서 우리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단체를 만들자는 고민이 이어져 2015년 **‘행복교육실천 운동’(행복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임이 출발했어요. 올해 좋은 교사운동과 단체협약을 맺었죠. 정회원이 40여 명인 작은 단체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40여 분의 선생님이 더 계시고 교수선교회, 교사선교회 대전지역모임, CCCTIM 대전지역모임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사역을 하고 있어요. 회원 수는 적지만 대전이라는 한 장소에 밀집해 있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행복교실은 이제 막 정비되고 성장하는 때예요.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좋은교사 전선생님(16년도 11월호)

## 다. 학계의 연구

교사들은 자발적인 모임에서 시작했던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이러한 경향에서 교사들의 연구에는 수업현장을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질적연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2년간 행복대 석사 과건 시험에 합격하여 새롭게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좋은교사 복유림탐방(1기) 및 현장 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때 A고 및 B중, C중에서 **질적 수업연구**를 할 수 있었고 배움의 공동체와 관련된 석사 논문을

출 수 있었습니다. 일본 배움의 공동체 모델이 국내 학교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비교 연구한 것으로 기계적 도입이나 기술이 아닌, 학교 문화에 따라, 교사의 신념에 따라, 개별화되며 다양한 적용이 일어남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후 2년간, **수업코칭**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행복대 대학원 박사과정(3년차)**에서의 **연구방향**도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의 수업 전문성 성장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규정해내는 일 등, 수업 코칭의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 수업코칭연구소 김선생님(14년도 4월호)

## 라. 혁신학교

2010년 ‘좋은교사 좋은만남’ 10월호의 김선생님의 경우, 혁신학교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혁신학교 정책이 시작된 시기가 2009년임을 고려했을 때, 2010년은 혁신학교 정책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김선생님의 글을 통해 경기도 혁신학교의 정책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한가운데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혁신 교육을 위해 어떻게 소통하며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지가 관찰된다.

사랑중학교의 일은 뜻밖에 경기도교육감이 바뀌면서 갑자기 커져 버렸다. 그동안 사랑중학교에서 추진해 왔던 전문화 연수나, 대학생 멘토링, 학생 생활 규정 개정 등이 새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하며 새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이후 언론의 관심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언론에 비춰지는 학교의 모습과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학교 모습에 약간씩 괴리가 생겨나기도 하면서 더 많은 고민들이 생겼지요. 그리고 학교가 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학교의 변화는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계획서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소통**이 일어나느냐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떤 모양으로 열매 맺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변화의 과정에서 사랑중학교 구성원 모두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 좋은교사 김선생님(10년도 10월호)

## 2. 좋은교사 수업연구 고유의 특성

### 가. 교육의 공론장 및 대안적 교육 탐색의 장

김교사는 전국단위교사대회에서 연수를 받은 내용을 학습연구년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 겪는 생활지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했다. 그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모임과 연구회를 결성하고 이후로도 자발적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2 기독교사대회 때 처음 회복적 생활교육을 접하게 되었는데 교직관의 근간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2013년 학습연구년을 하면서 회복적 생활교육 1년 과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략 .... 2014년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폭위를 일곱 번 열어 아무도 말지 않으려 하는 5학년과 가장 난폭한 안○○ 학생을 맡게 되었습니다. 배운 대로 차근차근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급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급 약속 정하기,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하는 방법 알기, 상대를 평가·판단·비난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법, 나하고 코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는가 실천하기 등. 아이들은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존재로 보는 법에 몰들어 갔습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면서** 아이들은 꽃봉오리처럼 변화되었고 저도 학급 경영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중략....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 반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특히, 안○○의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바뀌었다며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1년간 학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학폭으로 시끄러운 학교였는데 말이죠. **이 경험을 보다 많은 선생님과 나누고 싶어 광주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를 결성하였고 1년 과정을 두 차례 실시하며 광주, 전남 지역에 회복적 생활교육을 널리 알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반응도 너무 뜨겁습니다.**

- 좋은교사 김선생님(18년도 1월호)

#### 나. 교육 정책 연구 및 정책 운동

좋은교사의 『정책기사』(2010년 7월호~2020년 11월호(총 113권))는 좋은교사운동의 교사단체로서의 정책적 목표와 기능 등을 나타낸다. <표 7>에 나타난 ‘방안과 대안/제안, 과제와 정책, 운동과 캠페인’은 교원단체로서 좋은교사운동의 정체성과 지향점(빈도 누계 13.4%)이 보이며 ‘(학습)부진,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 (교육)개혁’ 등은 수업현장의 문제점이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관련(빈도 누계 10.3%)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교사들은 교사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수업의 전문성 신장, 학교문화 개선과 관련된 정책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련된 연구를 팀을 이루어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좋은교사 저널의 특집기사의 특징

구분	핵심어	빈도	퍼센트	구분	핵심어	빈도	퍼센트
1	교육	45	19.6%	11	정책	5	2.2%
2	학교	17	7.4%	12	개혁	4	1.7%
3	학습	8	3.5%	13	교육감	4	1.7%
4	교사	7	3.0%	14	기억	4	1.7%
5	방안	7	3.0%	15	생활	4	1.7%
6	대안	6	2.6%	16	운동	4	1.7%
7	부진	6	2.6%	17	제안	4	1.7%
8	시대	6	2.6%	18	코로나	4	1.7%
9	회복	6	2.6%	19	폭력	4	1.7%
10	과제	5	2.2%	20	현장	4	1.7%

대전 행복교실에서 진행하는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모임은 **정책 모임**이에요. 애착이 가는 이유는 **교육 정책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비해 관심을 갖는 교사들이 너무 적어서 **현장의 소리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른 연구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지만 유독 정책만은 소수의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점이 아쉽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제가 2012 기독교사 대회에서 홍인기 선생님의 **교육 정책 관련 강의를** 듣고 그 해 2학기부터 서울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하는 **정책 모임**에 나갔어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였지만 정책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후엔 5명의 선생님과 꾸준히 대전에서 정책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 학교 평가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했어요. 올해는 **업무 정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전 행복교실교육정책팀 선생님들과 연구를 하고 있어요.

- 좋은교사 이선생님(18년도 11월호)

#### 다. 수업코칭연구소의 신념과 출발

좋은교사운동 안에서의 자발적인 모임들은 전문적인 연구회나 연구소의 성격을 가지면서 변모하게 된다. 초기에는 교사 리더들이 모임들을 개척하고 이후 모임은 운영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결과물 소통 등의 방식에서 전문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2000년 3월 시작된 협동학습연구회와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과를 연구하는 모임, 2008년 행복한 수업만들기 모임으로 학교급별 모임, 교과별 모임, 2011년 수업코칭연구소, 2020년 이음연구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 수업코칭연구소는 교사의 생애사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어려움, 딜레마, 소진 등’과 같은 문제를 두고, 동료 교사가 교사의 시선에서 함께 수업을 이야기하였으며, 혁신학교 등의 특정 학교가 아닌 보통의 일반적 학교와 학교와 교과를 넘어선 지역단위 모임에서 자발적인 수업나눔 운동이 전개하였다(이규철, 2016; 김효수 외, 2018).

행복한수업만들기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2011년, 김태현 선생님이 상근하고 문경민 선생님과 제가 각각 초등, 중등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수업기법으로나 나아가기보다 **선생님들이 처한 내면의 아픔이나 두려움** 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사들이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 2월초, 종로의 한 식당에서 이규철, 김태현, 김효수 세 명이 함께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업에는 교사의 삶이 반된다. 또한 수업은 학생들이 교사의 삶을 만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자신의 신념이나 정서가 수업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지금의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수업코칭연구소 김선생님(14년도 4월호)

### 1) 전문모임을 이끌어 가기 위한 교사 리더들의 비합리적인 헌신

박교사의 수업 생애사에서는 전문 모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모임을 만드는 교사 리더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차비만 왕복 5만원이 넘는데, 박선생님은 열정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임을 참석하시고, 결국에는 대전에서 수업을 보고 나누는 **‘수업친구만들기’ 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그의 무모한 도전을 보면서, 피 끓는 나이, 서론의 피를 수혈받고 싶었다.

- 수업코칭연구소 박선생님(12년도 1월호)

### 2) 동료의 지지와 격려를 통한 회복

임교사의 수업 생애사에서는 전문 모임으로서의 수업코칭연구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료 교사의 관계를 통해서 내적 측면(정체성, 효능감 등)의 변화나 회복(수업 자신감 등)을 가져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김소현 외, 2013; 진용성, 2017; 박선영, 2019).

작년에 대전 행수연 모임에 함께 했고, 충청 수업코칭 활동가 과정도 했어요. 이 시간 동안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 보게 되었어요. 제 망한(?) 수업을 보며 수업친구들이 의미 있는 지점을 이야기 해주고 지지해 주며 제 수업에 꽃을 달아 주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향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부족함에 대해 공부하면서 열등감에서 벗어 나고 **수업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업 코칭**에 감사하죠. 내면이 무너진 교사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알려줬어요.

- 수업코칭연구소 임선생님(16년도 4월호)

### 3) 교사공동체, 학교와 지역을 넘어선 공간에 공헌

김교사의 수업 생애사에서는 전문 모임으로서의 수업코칭연구소가 학교 차원에서, 학교나 지역을 넘어서서 교사의 집단적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김효수, 2016; 김효수 외, 2017).

개인적으로는 2014년부터 광주 지역 수업코칭연구회 모임도 함께하고 있어요. 좋은교사운동의 수업코칭연구소 활동가 과정 1기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모임이에요. 수업코칭연구회 모임에서 배운 것으로 **지역 모임이나 연수에서 섬길 수 있어서 더 감사**했구요. 물론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돕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 수업코칭연구소 김선생님(18년도 7월호)

## 3. 그 삶과 이후의 삶: 심층인터뷰에 드러나 교사 생애 속 수업연구 역사

A교사와 B교사는 한국의 수업연구의 역사와 좋은교사운동의 역사 중 일부를 살아온 교사 리더이자 주체(teacher agency)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이 두 교사는 ‘좋은교사의 저널’ 중 『좋은교사 좋은만남』에 교사의 수업 생애사를 게재한 공통점이 있었다. 두 교사의 교사 생애는 생애전환기를 기점으로 4단계로 나누었으며, 저널에 실린 수업 생애사를 분석하여 <표 8>과 <표 9>를 구성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였다. <표 8>과 <표 9>에 제시된 밑줄 부분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보완해서 기술한 내용이다.

### 가. A선생님 사례

A교사는 생애 중요한 가치관과 신념, 중요한 전환점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뿐만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성인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을 형성하게 된 배경은 일단 학창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입시 중심으로 진행된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채수를 하는 시절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청소년에 대한 안타까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마음이 교사의 길로 들어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중략....대학시절 기억나는 것은 98년 1회 기독교사대회에서 선배교사분들(송인수, 정병오, 김진우 선생님 등)의 수업과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듣고 협동학습세미나 등에 참석하였고 2회 대회에서는 자원봉사 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비교사들을 위해서 배움과 나눔 모임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에 좋은 교사 사무간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예비교사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개설하였습니다. 발령받은 이후로는 좋은교사운동의 가치를 교직에서 실현하고 싶어서 첫담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어려웠던 친구들 1:1결연하고, 자발적으로 매년 교원평가 전에 수업평가를 받는 것을 했어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2014-2015년도에 다시 좋은교사운동 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에 교육실천위원장을 하면서, 수업코칭연구소 사역과 더불어 언어폭력이 심한 아이들에게 밴드를 통한 공감친구 캠페인을 시작했어요....중략....현재는 그러한 모든 생애가 기반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연구사로 정책연구를 감당하고 있어요.

(A교사 심층인터뷰 내용 중 일부)

〈표 8〉 A교사의 생애표(197\_년~현재)

유년기	청소년기	대학시절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 자연에서 열목어와 뱀을 잡고, 냇가에서 잡은 물고리로 매운탕을 끓여 먹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때에는 5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공부</li> <li>• 고등학교 때에는 소수정예반에서 스파르타식 입시 교육을 받음</li> <li>• 수능 시험을 재수하며 청소년 상담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교사의 꿈으로 변모됨</li> <li>• 사범대로 진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대학생 시절, 제 1회 기독교 교사대회에 자원봉사를 하며 여러 선배 선생님들과 만남</li> <li>• 배움과 나눔모임 만드심(예비교사들을 위해)</li> <li>• 2회 대회에서 자원봉사 팀장</li> <li>• 2002년 좋은교사 사무간사(예비교사 아카데미 처음 개설)</li> <li>• 협동학습 세미나에 참석, 협동학습을 배우고 접함</li> <li>• 2003년 교사로 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월 교직생활 후 군복무</li> <li>• 29세 본격적인 교직 생활을 시작함</li> <li>• 좋은교사운동의 '교육실천운동, 정직캠페인, 가정방문 가정방문(36명 중 3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1명의 학부모는 학교로 방문), 자발적 수업평가받기 운동(매해 교원평가 전 실시), 일대일 결연'에 열심히 참가함</li> <li>• 교육대학원 진학(석사, 박사과정)</li> <li>• 기독교 사회교사 모임 시작</li> <li>• 2006년 학생캠페인 - 컨닝 NO 캠페인 (학생들과 모임을 시작, 약 1,100개의 버튼을 만들어 나눔)</li> <li>• 2011년,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를 2명의 선생님과 같이 시작</li> <li>• 수업친구 만들기 운동 확산과 수업코칭 연구 이론화를 위해 노력</li> <li>• 2014-2015 좋은교사 본부에 상근 : 공감친구 운동 시작 (밴드)</li> <li>• (현) 교육부 정책연구</li> </ul>

A교사는 앞서 IV장 1절과 2절에서 논의한 '자발적인 교사모임의 증가와 전문화'로 대표되는 예비교사를 위한 아카데미, 수업코칭연구소 등의 실천을 보여주었고, '수업연구 실천의 공론장으로서 전국단위 교사대회'에 1회 때부터 참여하며 그 장소가 교육생애에서 중요한 전환기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A교사는 좋은교사운동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실천한 여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좋은교사운동의 상시근무자로서 활동하기도 하면서 학생과 학교문화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만드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의 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A교사는 <표 6>에서 학계의 연구 경향이 변화한 것처럼 수업연구를 실천하는 교사의 생애도 변화한 모습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교사연구자로서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장곡중과 이유중의 배움 공동체를 질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수업협의로 대표되는 수업연구가 교사의 수업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죠. 하여 수업코칭연구소를 2012년에 발족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발적교사모임으로 시작했지만 2014년부터 지역모임이 하나둘 시작되게 되었고, 누군가를 돕고 가르치던 모임이 실천을 하는 모임으로 전환되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신능중학교에 찾아가서 수업나눔 실천학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 결과는 논문으로도 발표하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좋은 실천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학계와 소통해야하고, 기록을 통해서 실천이 연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2018년부터는 연구가 수업의 방향이다라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지역모임들이 연구과제를 정하고 본부의 지원을 받으며 연구를 실천하는 성장연구프로젝트 운동과 연구친구 운동을 펼치게 되었죠. 코로나19이후에는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함께 경계를 넘어서서 실천하면서 수업코칭연구소 자체적으로는 ver 2.0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어요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연구프리마켓이라는 공론장을 만들어서 함께 세우고 실천하고 연구한 결과를 나누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는 교사연구자들이 모여 연구하는 전문공동체의 모습으로 더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요.

(A교사 심층인터뷰 내용 중 일부)

A교사는 본인의 사례를 2015년 중반부터 자신의 교육 경험을 실천적 지식으로 생산하는(예. 책 출간, 연구물 발표, 실행 연구) 실천 교육학의 한 예로 제시하면서 A교사는 이러한 것이 2015년 중반쯤부터 교사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책으로 출간하는 등의 실천의 교육학의 한 예라고 제시하면서 좋은교사운동의 수업연구도 그러한 흐름에 있다고 논의하였다.

#### 나. B선생님 사례

B교사는 생애 중요한 가치관과 신념, 중요한 전환점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따듯했던 담임 선생님과 추억이 평생의 교육생애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지 이미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세요. 그 후 제 삶에서 중요했던 시기가 처음에 공대에 입학하고 방향했던 시기 같아요.

그 방향을 책을 읽고, 소중한 주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삶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씩 분명해졌어요. 학창시절에 아무 꿈 없이 나처럼... 학교를 다닐 것 같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언가 다른 배움을 얻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꿈이 교육으로 잡혀진 것이예요. 그러니 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고, 학과 안에서 기도모임 같은 것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당시 기독교사신문을 읽게 되면서 교육에서 실천적으로 삶을 사시는 선배교사분들처럼 나중이라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지요.....중략....기본적으로 저는 교육이 교육다워지는 것에 제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고, 어떤 게 교육다운 것이냐고 했을 때, 아이들과 삶으로 만나는 것, 깊이 만나고, 내 삶이 아이들에게 교재가 되고, 내가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교사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중략.... 내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많이 회의감이 들었어요. 초창기에는 입시중심으로 강의를 잘하고 담임으로서 잘 돌보자는 생각을 했었지요. 계속 회의감이 생기더라구요. 제 머릿속에 있는 기독교사 모임이 생각났고, 부천의 기독교사 지역모임에 참여하고 모임과 함께 성장해왔던 것 같고요... 사랑중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을 지를 의미있게 실천해왔었고, 그러면서 정말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중략....현재는 그러한 모든 생애가 기반이 되어서 좋은교사운동의 공동대표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B교사 심층인터뷰 내용 중 일부)

〈표 9〉 B선생님의 생애표(1997년 ~ 현재)

유년기	청소년기	대학시절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 반장으로 활동, 통지표에 “두뇌는 명석하나 주의가 산만함”이라고 평가를 받음</li> <li>· 초등 4학년 때 뜻했던 기억(담임선생님의 따뜻함과 친밀함, 교사로의 삶에 대한 롤모델이 되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도시 삶으로 진입</li> <li>· 고등학교 2학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공학을 전공하다 다시 입시를 거쳐 교육학을 전공함</li> <li>· 대학2학년 삶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생김. 교육에 대한 꿈으로 통합됨.</li> <li>· 97년도 기독교사신문과의 만남, 기독교사로 활동하고 싶은 의지가 생김</li> <li>· 학생들을 보며, 학창시절의 문제의식, 교육의 회복 등을 고민 =&gt;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초창기에는 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돕고 담임으로 학생들을 돌보는 데 충실하고자 함</li> <li>·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김</li> <li>· 기독교사 공동체를 찾기 시작(부천 기윤실) 2년차부터 지역모임 참석, 수련회 기독교사 공동체, 모임과 함께 기독교사로서 성장..</li> <li>· 2008년 사랑중 초빙</li> <li>· 혁신학교 운영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음</li> <li>· (현)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li> </ul>

B교사는 앞서 IV장 1절과 2절에서 논의한 ‘자발적인 교사모임의 증가, 열린교육과 혁신교육’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수업연구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수업전문성이 함께 성장하고, 공간에서의 좋은교사 운동 목표인 ‘학생들이 배움에 기쁨을 느끼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등의 혁신적인 수업실천’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논의하고 있었다. 현재 좋은교사운동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B교사는 그러한 경험들을 정책적으로 펼치는데 주체로서 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B교사는 혁신교육과 교육정책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혁신학교는 일종의 회복의 관점이었어요.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 무렵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세움’의 공부모임이 있었어요. 김진우 임종화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2005년 이후에 책읽고 공부하는 모임이었었는데, 당시 주제가 뭐였냐면 대안적 배움을 찾아서 라는 것이었어요. 현재 학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배움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 때 발도르프 교육, 그 때 처음 사또마나부 배움의 공동체 처음 접했고.. 일본 키노쿠니 어린이 마을.. 그런 꼭지 잡아서 같이 읽고 책의 저자나 책의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를 모셔서 모임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갔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좋은교사운동에서 교장공모도 준비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 흐름 속에서 사랑중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제가 덕양에 초빙으로 함께하게 된 것이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경력이 쌓여도 교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사를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동인은 사랑중에서 실천을 돌아보면, 고민을 나누고, 고민을 누군가와 함께 해결해가고, 다시 그것을 논의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그 프로세스가 학교 안에 살아있어야 교사가 성장한다. 저는 이게 교사의 성장 순환 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B교사 심층인터뷰 내용 중 일부)

B교사는 교사의 자발적실천이 열린교육처럼 제도화 될 때 우려스러웠던 점을 논의하며, 교사가 소통을 하며, 함께 연구를 하고 실천하고 이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자발성과 전문성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표 6>의 내용을 현재의 관점에서 교사연구자의 시선에서 종합한 의견이라고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좋은교사저널(교사대상 교육저널)의 ‘좋은교사, 좋은만남’과 ‘정책기사’ 어휘를 분석하고 초점집단면담을 통하여 좋은교사운동에서 나타난 수업연구 역사를 살펴보았다.

좋은교사운동은 1998년도에 시작하여 수업 실천과 연구, 학교 혁신, 교육 정책을 통한 한국 교육 변화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좋은교사운동의 한 모임인 ‘수업코칭연구소’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수업을 성찰하고 실천하고 있다.

교사의 생애사적 내용이 담긴 저널과 기존 한국 수업연구 역사(이혁규, 2019)를 비교한 결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좋은교사운동 고유 특징이 관찰되었다. 먼저 이혁규(2019)의 주장과 같이 저널 속 교사들은 수업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수업연구 및 실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학교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좋은교사운동의 고유의 특징으로는 첫째, 교사의 자발적 모임은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수업연구의 성격을 띤 교과연구 공동체, 더 나아가 전문적 연구회, 연구소로 발전함이 관찰되었다. 좋은교사 공동체의 특색은 이러한 공동체가 수업연구의 성격과 신앙적인 성격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학생(아이, 제자)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가르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몇몇 교사들은 혁신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었고, 유행을 따르는 교육방법이 아닌 본인의 신념과 철학이 담긴 교육을 실천함이 보였다. 셋째, 연수에 참여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논문을 쓰는 등 전문적 수업연구에 힘쓸 뿐만 아니라, 연구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고 이를 교육 운동으로 이어나가며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교육 주체로서의 실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교교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코칭하는 새로운 양상의 수업연구를 실천하고 있었다. ‘수업코칭연구소’는 위계적 수업장학이 아닌, 수평적인 접근으로 동료 교사에게 ‘수업친구’가 되어 교사들이 수업을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좋은교사운동에서의 수업연구의 역사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교사의 생애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국 수업연구의 역사를 2000년 이후로 조망함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로는 2000년 이전의 한국 수업연구 역사를 알아보기 위한 양적·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한국의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위해 힘써온 발자취를 탐구하길 제언한다.

※ 논문 투고일: 2021. 7. 11.    ※ 논문 수정일: 2021. 8. 7.    ※ 게재 확정일 : 2021. 8. 30.

## 〈참고문헌〉

- 강대중(2009). 평생학습 연구 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 201-223.
- 김성천(2007). **교사자율연구모임을 통한 교사 전문성 성장 과정: 협동학습연구회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소연(2019). **동학년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초등체육 표현활동 수업연구 사례**.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소현, 이규철(2013). 관계중심의 수업 코칭의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0(2), 277-303.
- 김옥선(2019). **수업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립유치원 교사의 심미수업 경험 내러티브 탐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효수(2016). 수업코칭을 통한 학교문화변화 사례 연구: S중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연구** 1(1), 47-73.
- 김효수, 진용성(2017). 수업나눔을 적용한 단위학교 수업협의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4(2), 81-107.
- 민성은, 김영천, 정정훈(2015). 생애사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자료 분석 방법 탐구. **교사교육연구**, 54(4), 621-638.
- 박선영. (2019). **동료 코칭을 통한 초등 교사의 정체성 및 영어 수업 변화 탐색**.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서경혜(2012). 예비교사들의 협력적 수업연구에 대한 실행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48-76.
- 서미라(2019). **도덕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자전적 탐구**.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원애련(2011). 조선어문과 국어 읽기 텍스트 어휘의 계량 비교 연구: 중학교 1학년 상권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22, 169-188.
- 이규철(2016). **수업 코칭**. 서울: 맘에드림.
- 이동성(2013). 생애사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에 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26(2), 71-96.
- 이동성(2015). **생애사 연구**.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이승현, 한대동(2019). 학교 내 수업연구모임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3), 319-344.
- 이채영(2020). **사범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혁규(2019). 한국의 수업연구 역사에 대한 일 견해. **교육문화연구** 25(2), 57-82.
- 장도현(2019). **교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 '도덕' 교과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혜현, 진용성(2021). 남한의 초등학교와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비교 연구, **한국어문교육** 34, 117-154.
- 진용성(2017). 국어과 '수업코칭' 대화분석\_수업 후 수업나눔 단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2(3), 165-197.
- 진용성, 박선영(2021). **좋은교사운동에서 수업연구의 역사에 관한 연구**. 청주교사교육포럼

- CITEF2020 제30회 학교와 수업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83-99.
- 최권오(2007). **중학교에서의 수업연구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석재(2014).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개방형 형태소 분석기의 설계와 구현. **언어와 정보사회** 22, 53-82.
-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1), 127-155.
- 최지훈(2018).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협력적 수업연구(Lesson Study) 경험 :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성(2014).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연구: 2009 개정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제남(2016). **혁신학교 수업연구회를 통한 교사 수업전문성 사례연구: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함께 하는 수업연구회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Dhunpath, R.(2000). Life history methodology: 'Narradigm' regained.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3(5), 543-551.
- Glaser, B. G.(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iddens, A., & Sutton, P. W.(2017). **Sociology(8th Ed)**, Cambridge: Polity Press.
- Hamad, E. O., Savundranayagam, M.Y., Holmes, J. D., Kinsella, E. A., & Johnson, A. M.(2016). Toward a mixed-methods research approach to content analysis in the digital Age: The combined content-analysis model and its applications to health care twitter feeds.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8(3), 1-17.
- Holstein, J. A., & Gubrium. J. F.(2000). **Constructing the Life Course**. New York: General Hall.
- Huberman, M.(1993). **The Lives of Teachers**. NY: Teacher College Press.
- Krippendorff, K.(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Calif.: Sage.
- Mandelbaum, D. G.(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hand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 White, M. D., & Marsh, E. E.(2006).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In L. M. Baker (Eds.), **Library Trends**(vol. 2, pp. 22-45).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bstract〉

---

## A Study on the History of Classroom Research in the Good Teacher Movement

---

Jin, Yongseong<sup>1</sup>, Ji, Jeonghwa<sup>2</sup>, Seo, Mira<sup>3</sup>, Lee, Sehee<sup>4</sup>, Park, Seonyoung<sup>5</sup>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 of the study on ‘classroom research’ conducted under the ‘Good Teacher Movement’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classroom research in Korea.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s, the study employed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analyzed 113 monthly issues of Good Teacher Magazines. The mai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Good Teacher, Good Encounter’ section, which was serialized in the Journal of Good Teachers. This section contained the contents of a teacher’s class life history. To supplement this discuss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teachers.

The study yielded three main results. First, the study of teaching in the Good Teacher Movement was discussed while showing similar points to the history of teaching in Korea(Lee Hyuk-gyu, 2019). Through the life history of teachers, we confirmed the intents of ‘Open Education and Innovative Education, the growth of educational voluntary classroom research groups, and practical and qualitative research for classroom research.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classroom research in the Good Teacher Movement were discussed. Conferences as a public forum were conducted to explore alternative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classroom research as an educational policy mo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activities, such as ‘the Good Teachers’ Instructional Coaching Institute,’ which conducts classroom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fellow teachers. Thir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wo teachers who led a part of the teaching research history in Korea and the Good Teacher Movement as the main body, the above mentioned aspects could be confirmed once again through the life history of teachers.

**Keywords** : Classroom Research, Good Teacher Movement, Teacher's educational life history

- 
1. Teacher, Pyoungnae Elementary School, jinyoungsung@hanmail.net (Lead author)
  2. Master teacher, Buyung Elementary School, ji731015@korea.kr (Co-author)
  3. Master teacher, Umsa Middle School, seomira1@hanmail.net (Co-author)
  4. Teacher, Songwoo Elementary School, cccbeauty3787@gmail.com (Co-author)
  5. Teacher, Taebong Elementary School, bsy122@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